

증상



김 경 래
〈연세의대 교수〉

갑상선질환의 증상은 질환별로 상당히 다르며, 갑상선 자체에 나타나는 증상과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과 관련된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갑상선은 목의 전면부 중앙 아래쪽에 위치하지만 정상인에서는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만져서도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갑상선질환에서는 갑상선이 비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서도 구별이 가능해진다.

정상적으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호르몬은 한마디로 체내의 대사과정을 촉진시키고 에너지생산, 열의 발산에 관여하며, 지능발달, 신체의 성장과 발육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호르몬의 부족은 에너지의 생산부족, 추위민감, 피로등을 유발하고 반대로 이 호르몬이 증가되면 에너지의 과다생산을 초래하여 몸에 열이 나게 하고 땀을 많이 나게 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고 생각 말고 목부위를 유심히 관찰해 보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만성 갑상선염(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초기에는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커지며, 만지면 마치 고무나 나무때기를 만지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증상은 별로 느끼지 못하나, 염증이 진행됨에 따라 갑상선기능저하에 빠져서 결국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을 갖게 된다.

갑상선질환

그레이브스병 - 체중감소, 발열 유발

1.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의 증상

20세부터 40세사이의 여성에 많고, 여자에서 많이 발병한다(남자보다 5~10배). 가족중에 갑상선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등을 받은 후에 발병되기도 한다.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커지며 더러는 눈주위가 붓거나 눈이 돌출되기도 한다. 무릎아래의 정강이 부분이 붓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체내의 열생산이 많아지므로, 더위를 참기 힘들고 몸에서 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여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촉촉하여져서 피부를 만지면 마치 벨벳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식욕이 왕성하여 자주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피로하며 기운이 떨어진다. 특히 체중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5~10kg 이상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당뇨병이나 암에 대한 검사만 반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슴이 뛰며, 맥박이 빨라지고, 손발이 가늘게 떨리며 심한 경우에는 글씨쓰기도 힘들어진다. 진행이 되면서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찬 것을 느끼게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층계 오르기가 힘들어진다. 음식에 상관없이 소화는 잘 되는데도 변을 자주보거나 무른 변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 없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불안, 초조등이 생긴다. 주위 사람들과 쉽게 다투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도 자주하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주위의 가족들이 신경정신과 진찰을 권유하여 검사도중에 이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량이 줄어들고, 월경주기가 길어지거나 불규칙해 지기도 한다.

2.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갑상선수술후 혹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후에 생긴 경우에는 갑상선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성 갑상선염과 같은 염증

성 갑상선질환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인 경우에는 우선 갑상선이 커지므로 본인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만졌을 때 대부분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딱딱하게 만져지고 표면이 약간 오돌오돌하거나 불규칙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별 증상을 못 느끼다가 차츰 호르몬부족이 심해지면서 증상을 느끼게 된다.

대체로 쉽게 피로하고 나른해지며, 의욕이 없어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얼굴 특히 눈주위와 손발이 붓는데 아침 기상후에 심한 경향이 있다. 추위를 타고(여름에는 오히려 더위를 잘 못느낌)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조금만 오래 말하거나 노래를 하면 쉽게 목소리가 쉬며, 실제 목소리가 느려지기도 한다. 입맛이 감소되어 잘 못먹는데도 체중이 자꾸 늘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지며 잘 부스러지거나 빠진다. 맥박이 느려지며, 번비가 잘 생기고, 기능저하가 오래 진행이 되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더러는 청력도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에는 원인없이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늦어지거나 오는 경우도 있다. 오

랫동안 치료가 안되면 호흡곤란이 오고 의식이 혼탁해지기도 한다.

3. 염증성 갑상선질환의 증상

아급성 갑상선염은 바이러스가 갑상선에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감기증상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감기증세로 미열, 두통, 피로, 근육통등이 나타나다가 차츰 특징적으로 갑상선부위에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갑상선부위 뿐만아니라 목언저리, 귀있는 곳까지 퍼지기도 한다. 또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딱딱하게 커지며, 누르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산후 갑상선염은 산후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호르몬분비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초기인 산후 1~3개월후에는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단단하게 부으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행이 되어 산후 3~5개월이 지나면서 갑상선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병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산후 3~5개월 후, 피로, 전신쇠약, 부종, 체중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히 산후라서 그렇다

4. 결절성 갑상선질환의 증상

갑상선결절이란 갑상선에 한개 혹은 그 이상의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결절성 갑상선질환에서는 갑상선호르몬의 분비는 정상이므로 기능저하 혹은 기능항진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갑상선을 만졌을때에 한개 혹은 여러개의 혹이 만져질 뿐이다.

갑상선 결절은 다시 양성 결절과 악성 결절로 나눌 수 있는데, 양성 갑상선결절인 경우에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혹의 표면이 편평하며, 부드럽고, 주위 조직과 분리되어서 움직여지는 모양을 보인다. 악성 결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지며 혹의 표면이 불규칙하고 딱딱하며, 주위 조직에 꼭 붙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악성 결절일 경우에는 갑상선 주위에 임파선이 만져지거나, 성대마비로 인하여 갑자기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결절이 아주 큰 경우에는 기도를 압박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혹의 내부로 출혈이 되어 혹이 갑자기 커지면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혹이 양쪽 갑상선에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마치 염증성 갑상선질환처럼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기능항진이나 저하의 증상이 없는 것이 구별점 중의 하나이다.

成人病新聞 創刊15周年을 祝賀합니다

주식회사 녹십자
會長 許永燮

동아제약주식회사
會長 姜信浩

보령제약주식회사
會長 金昇浩

주식회사 종외제약
會長 李宗鎬

녹색삼기술경제연구소
理事長 李祥羲

영진약품주식회사
副會長 金鍾仁

일동제약주식회사
會長 李金器

일양약품주식회사
社長 鄭度彦

제일약품주식회사
社長 韓昇洙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에너지
社長 成孝慶